

동아시아에서만 발견된다.  
경계심이 많아 사람을 피한다.

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자  
국가 천연기념물이다.  
전 세계 개체수는 4,000마리뿐으로,  
전 세계 호랑이 개체수와 비슷하다.

강에서만 서식하며 잠수하여  
물고기를 잡아먹는다.

대한민국에서는  
10월부터 4월 중순까지 볼 수 있다.

호사비오리는 긴 땃기가 여러 가닥이고,  
옆구리는 물고기 같은 비늘무늬로 뒤덮여  
있으며, 붉은 부리 끝은 노란색이다.

수컷의 머리는 짙은 녹색이고  
암컷과 어린 새의 머리는 갈색이다.

한국에서 주요 위협 요인은  
사람에 의한 교란이다.

또한 강 준설과 댐은  
호사비오리의 서식지뿐 아니라  
호사비오리가 먹는 물고기의  
서식지를 파괴한다.

운이 좋게 호사비오리를 만나게 된다면  
거리를 유지하세요!



호사비오리가 귀중한 '지표종'인 이유는,  
자연 상태에 가까운 건강한 강에서만  
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대한민국 전역에서 이루어진 조사 결과,  
호사비오리가 서식하는 강에는  
중요한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 함께 서식한다.  
수달, 원앙, 흰목물떼새가 그 예이다.

한국에서 호사비오리는 12개 이상의 강에서 발견되었다.  
이 가운데 호사비오리에게 가장 중요한 강은  
연천군 임진강, 남한강, 남강, 섬진강, 북한강이다.

새와 생명의 터는 한국과 황해생태권역의 조류와 서식지 보전에 기여한다.  
지역과 전국 단위에서 보전 활동을 하고 있으며, 인천에 본부를 둔 동아시아  
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(<https://www.eaaflyway.net/>)이 후원  
하는 국제 호사비오리 전문태스크포스(Scaly-sided Merganser Task Force)  
구성원이다.



호사비오리, 임진강, 새와 생명의 터 연천

이미지를 제공해 주신 새와 생명의 터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 
새와 생명의 터 리플릿은 한스자이델 재단  
한국 사무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다.  
독일 한스자이델 재단은 평화와 민주주의,  
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.



더 자세한 내용이나 호사비오리 발견을  
공유하실 분은 새와 생명의 터로 연락주시십시오.

한국어 이메일 문의 [park.meena@birdskorea.org](mailto:park.meena@birdskorea.org)  
연천지부 대표 010.3701.9460  
새와 생명의 터 사무국 051.627.3163

<https://www.birdskoreablog.org/>



원앙

흰목물떼새

# 호사비오리

호젓한 강어울의 부끄럼쟁이

